

교 회 목 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창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골로침회)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의미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마 1:16)

“야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마 1:1)에서 “그리스도”라는 호칭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풀어주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살펴보자.

구약에 나타난 기름 부으심

구약 시대의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주시는 직분자들과 관계가 있다.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레 8:12; 삼상 10:1; 왕상 19:16). 그러므로 구원의 종개자, “그리스도” 메시야,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표현되었을 때에 이는 가장 높은 직분자요, 구약 전체의 모든 권위가 이 한 사람 안에 하나로 모아진 것이며 또 그 안에서 모든 구약의 예언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된다. 새 언약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야는 마음속에 그의 왕위를 세우는 것이다(렘 31:31, 33:34). “그리스도”는 그의 성품을 그의 백성 안에 넣으시고 그들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그의 예언의 진리의 증인들로 삼으신 것이다. 베드로는 증언한다(벧전 2:9). 사도 요한 역시 고백한다(계 1:6). 그리하여 보내신 자(Sender),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은사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은사를 허락하셨다(고후 9:15).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다(렘 11:25-29).

예수님은 그의 명칭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내면을 세 단계에 걸쳐 우리 앞에 펼쳐 주신다.

1. 선지자

그는 선지자로서의 내면을 보여주셨다(신 18:15-19).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다.

2. 대제사장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서 말씀하셨다(히 11-13). 그는 그의 아버지의 성품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알려 준다. 오직 그의 품 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내셨다(요 1:18).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어떻게 한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는게 오직 성육신하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이 오신 것이다(요 3:12, 13).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 그는 세상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가셨다(요

1:29).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다.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요 1:29).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화복 제물 즉 양이 되시며 또한 제사장이 되신다(히 9:11, 12). 십자가 위에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고귀한 사역을 담당하셨다(히 1:3).

3. 왕

마지막으로 그는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통치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를 그의 형제로 만드신 분이다(히 2:9, 11).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 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나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로 그 땅, 곧 그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그 땅에서 “그리스도”를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과 같이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 삼면성 곧, 세 가지 직분, 삼 단계를 거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행하심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인 인간도 이 세 가지에서 결박을 당하고 있기에 여기서부터 해방과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거룩하심 그리고 복된 성품을 인간에게 반영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영성의 자유가 되게 하였고, 그의 거룩함과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도록 의지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전하여 줄 감정을 주셨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온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종명은 어두워진 것이다(렘 4:18). 양심과 의지는 있으나 여의없이 약하여져서 빛이 있으나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요 3:19). 결국에는 인간은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렘 7:24).

죄로 인하여 멸망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다.

먼저 선지자로서 그는 총명과 빛을 가지고 오셔서 죄의 어두움을 먼저 주시고 진리의 나라를 세워 주신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화생을 가지고 오셔서 죄의식을 없애 주시고 심한 불행과 양심의 가책에서부터 오는 찢든 중압감에서 해방시키시고 평화와 기쁨의 나라를 건설하신다. 그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시어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과 의의 나라를 세워 주신다. 과연 “그리스도”의 호칭은 그의 이름 예수를 설명해 준다. “그리스도”는 구속자이며 그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다. 그의 세 가지 직분은 인간의 영혼이 소유한 세 가지 능력, 즉 이해와 감정과 의지(지·정·의)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다. 어두움과 불행과 죄성으로 인한 비참함이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구원은 빛과 거룩함과 영적인 것, 세 사람 즉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좇는 놀라운 것이다(골 3:10). 이 놀라운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고후 3:18). 그리하여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렘 4:24).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요, 구원인 것이다.

진심으로 회개한 증인들의 고백

매일 종인되리라



2006년

전도와 선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지난 해 매일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된 교회 주변 전도와 총현 전도대를 통해서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만 270여 명이 교회에 등록되었으며, 교회에 등록한 전체 새가족이 33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2700여 명이 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잠 8:35).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더라면 죄인인 우리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벧전 1:13).

2006년, 이제 다시 깨어 근신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과 열심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되어서 또 다시 우리에게 명명하신 전도 지역과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1·1·1 전도(전교인이 1년에 1인이 1명씩 전도)와 매일 둘째 주 수요일에 있는 교회 주변 전도, 총현 전도대의 전도는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비록 날씨의 출저만 금주(11월), 수요일 예배 후에 있을 전체 전도 훈련과 교회 주변 전도에 모두 함께 참여하여 복음을 물려서 믿고 있을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 단기 선교도 이제 곧 첫 출발일(16일, 중동2부)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12월에만 약 400여 명의 증인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선교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며 특히 제2차 CMTC가 오는(8월) 찬양대예배 후 있습니다. 언어 훈련(1.8~2.26), 팀장 훈련(11월), 1일 수련회(14일)도 진행 및 준비되고 있습니다. 2006년 전도와 선교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위해서 주저하지 말고 지금 즉시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네가 그대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렘 22:15).

STOP CIRCLING

⁽¹⁾Then we turned and set out for the wilderness by the way to the Red Sea, as the LORD spoke to me, and circled Mount Seir for many days. ⁽²⁾And the LORD spoke to me saying, ⁽³⁾You have circled this mountain long enough. Now turn north.' (Deuteronomy 2:1-3)

After the miraculous exodus from Egypt by the hand of God, the Israelites crossed the Red Sea and proceeded to the Promised Land. During their journey, they sinned against God through doubt and rebellion. Consequently, they ended up circling the mountain of Seir for forty years, where the descendants of Esau, Jacob's brother, lived. They just walked around and around this desert region, battling unbelief and disobedience, crying out to the Lord and confessing their sins. Finally, the Lord asked them to stop circling and turn north. He was giving them a new opportunity. Now they had to travel by faith, as they faced the difficult mountains of life, on their journey to conquering Canaan. The difficult mountains of life are not geographical, but spiritual. They reside in your heart. These rough mountains are like battles, which need to be conquered. If not, they will lead you to complain, lose faith, and circle round and round them. As a believer, there is no more circling in this world because you are heading straight toward heaven. You must cross over the difficult mountains in order to get to heaven.

The mountain of anger is a relentless battle. Proverbs 18:19 tells us, "A brother offended is harder to be won than a strong city, and contentions are like the bars of a citadel." In other words, when people hate each other they cannot make peace because inside their hearts is a very strong anger mountain. If you conquer that mountain, which is like a strong city, you will have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This mountain presents itself all the time. Psalm 119:165 says, "Those who love Your law have great peace, and nothing causes them to stumble." Often times the mountain of anger breaks your heart, but you have to have peace with Jesus Christ. You have to conquer this mountain if you want to go north.

The mountain of mediocrity is a tough battle. If you want to go north, your heart has to be aggressive. Jesus told the church of Laodicea, "I know your deeds, that you are neither cold nor hot; I wish that you were cold or hot. So because you are lukewarm, and neither hot nor cold, I will spit you out of My mouth." (Rev 3:15-16). Taking the least difficult position or standing on middle ground in order to avoid doing the right thing is not safe. Matthew 24:12 says, "Because lawlessness is increased, most people's love will grow cold." Lukewarm behavior leads to sin, which decays the heart. Ephesians 5:14 says, "Awake, sleeper, and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Please be careful that you are not lukewarm.

The mountain of uncertainty is dangerous. As you travel toward heaven, many people and many things will try to get in your way. If you fear humans more than you fear God, you will go astray. If you are scared of certain conditions, then you will not be able to travel onward. If you think the land you are trying to reach is too far, or perhaps too dangerous because there are snakes and spiders, then you will not reach it. You need to be certain of God's sovereignty! Hebrews 10:35 says, "Therefore, do not throw away your confidence, which has a great reward." God's pathway is always clear and correct. Psalm 118:8 says,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the Lord than to trust in man."

The mountain of jealousy is an intense battle. If you are jealous, you will forget heaven, just like Peter. After Peter denied Jesus three times and Jesus resurrected, He came to see Peter at the Sea of Tiberias. Peter recognized Him and Jesus gave Him fish to eat for breakfast. He asked Peter three times if he loved Him and told him three times to feed His sheep. He also warned him that in his future someone was going to kill him, but that he should not concern himself over that, just follow Him. Peter turned around and looked at John, the

beloved disciple, and asked Jesus, "Lord, and what about this man?" (Jn. 21:21). Jesus told Peter, "If I want him to remain until I come, what is that to you? You follow Me!" (Jn. 21:22). Jealousy turns your head to focus on others and not Jesus. If you do not conquer it, you cannot go to the Kingdom.

The biggest mountain and most powerful mountain is pride. Everyone loves to be selfish. If you do not want to go round and round the Seir Mountain, you have to conquer the mountain of pride. Proverbs 16:18 says,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nd a haughty spirit before stumbling." Can you really give up your selfishness and rely on the Lord? Are you willing to depend on heavenly things, not earthly things? Perhaps you still need more money, better health, or nicer things. When Jesus prayed to God about His disciples, He said, "They are not of the world, even as I am not of the world" (Jn. 17:16). If you want to go to heaven, then you do not belong to the world, just as Jesus does not belong to the world. Romans 12:1&2 says, "Therefore I urge you,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and holy sacrifice,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Pride makes you conform to the world. It keeps you circling. "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lusts;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1 Jn. 2:15-17).

God loved Abraham, Isaac, and Jacob. From them He called His people, the Israelites, and gave them great leaders, like Moses, to help them reach the Promised Land. They could not make it to the Promised Land because they kept circling. They could not control or overcome the spiritual battles that faced them. These mountains kept them away. You have to get over these mountains, for it is the only way to heaven. You must walk by faith alone! Noah's ark and the tower of Babel remind us of the hopelessness of humanity, but God came down and grabbed the Israelites. He delivered them from Egypt, so that they could live in the Promised Land. They miserably failed in their journey, but if you give up, He will lead you.

God has ordered you to stop circling and turn north. If you listen, He will deliver you unto heaven. Sometimes, He will rebuke you, give you advice, or comfort you. He provides plenty of direction and strength through His word and spirit if you are willing to go with faith. Faith means you only listen to God and do not monkey around. When you look at life with your own eyes, your mind starts circling and you start listening to the world. Please listen to God's order. As you start fresh in this year of 2006, I do not want you to practice your Christian life by circling around and around mountains. Stop circling now, so that you can head straight to heaven where Jesus Christ is preparing your eternal home. Moses told the Israelites, "For the Lord your God has blessed you in all that you have done; He has known your wanderings through this great wilderness. These forty years the Lord your God has been with you; you have not lacked a thing" (Dt. 2:7). God has been with you during your wandering, but you are still not listening to Him. God requires your whole heart, and then He will go with you.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It is God's only way to heaven. I am sure if you do this, you will stop circling and arrive in heaven. Please my dear friend, go the narrow way, the heavenly way, the way of the cross. Amen. 

다음 주일 설교

맴도는 것을 멈추라



김성원 목사

¹⁾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흥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²⁾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³⁾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신명기 2:1-3)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십 년 동안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세일산 주변을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죄와 싸우면서 땅아 주변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며 자신들의 죄악을 자백하면서 그렇게 사십 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보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맴도는 것을 멈추고 북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험준한 산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 산들은 실제 있는 산이 아니라 영적인 산을 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거친 산들은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전투지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산들 때문에 불평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그 평안인 것으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라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배회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을 향해 곧장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험준한 산들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분노의 산 분노의 산은 무자비한 전투지입니다. 잠언 18:19는 말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움이라 한다면 성은 산성 문장 같으니라.”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강한 분노의 산이 있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과 같은 이 산을 정복하게 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의 산은 어느 때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편 119:165는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방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이 분노의 산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고 맴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이 산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립의 산 중립의 산은 치열한 전투지입니다. 만일 북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전투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움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움든지 너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움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리라”(계 3:15, 16). 옳은 일을 할면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기만 가장 쉬운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12은 말합니다. “불법이 성취되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지근한 행동은 죄를 낳고, 이것은 결국 마음을 부패시킵니다. 야베스서 51:14은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온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불신의 산 불신의 산은 매우 위험한 전투지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길을 잃고 맴니다. 어떤 상황들이 다칠지 두려움에 떠한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뱀과 거미가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면 결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35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겁탈함을 버리지 말라 이 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분명하고 정화됩니다. 시편 118:8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은 사람을 실패보다 나으며”

질투의 산 질투의 산은 격렬한 전투지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천국을 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 디마타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예수님을 그에게 조반으로 생선을 구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당신의 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 경고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당신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21:22).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나를 따르리라”(요 21:22). 이처럼 질투심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쏠리게 합니다. 질투심을 무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존심의 산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산은 자존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만약 세일산 주변을 계속해서 돌고 싶었다면 여러분은 자존심이라는 산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잠언 16:18은 말합니다. “고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정말로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탁할 수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돈과 건강할 육신 또 더 나은 무언가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 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까”(요 17:16). 만약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에 속해서는 안됩니다. 로마서 12:1, 2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라 그릇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림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존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니 이 세상이 좇아 온 것이니 이 세상이 그 정욕도 지나가 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넘어야 할 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 놓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산들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다가서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산들을 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께 찬양을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홀로 갈아가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사건은 더 이상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들은 이 여정 속에서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가를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이제 맴도는 것을 멈추고 북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라도 하고, 충고도 하시며, 넘치는 위로로 감싸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그 저 음성이란 한 번 깨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인도할 방로를 바라볼 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방황하게 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십시오. 200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계속 산 주변만 맴도는 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맴도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푹보라 들고 하늘을 보십시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일에 네게 북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할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십 년 동안 안을 돌리 함께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신 32:7). 하나님은 여러분이 방황하는 동안 여호와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온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으십시오. 이것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확신하건대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방황을 끝내고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십시오. 그 길은 천국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느 9:1-3)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이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재건은 시작된다. 가장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다. 주변 족속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였다.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변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탐욕하며 노력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성벽을 완성한 뒤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1-3절)은 참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성벽을 재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로 다 모였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문제를 대면 모이지 않는다. 심지어 모이지 않는 이유를 말하며 연연히 자기를 자랑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께로 모여야 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자. 그대야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며 영혼이 소생된다. 우리의 힘과 그로와 노력으로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으며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하지 못한다. 오직 주께로 다 모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행 1:13,14). 모이기를 폐하는 자를 파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히 10:24,25). 순수한 믿음으로 모일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금식하여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느헤미야는 금식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떠한가? 아직도 모일 때마다 먹고하고 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헌금이 먹는 일에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달 이십사 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굶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릎쓰며”(느 9:1). 금식하며 주님께 자신을 겸손히 내어 드려야 한다. 다메섹에서 거듭난 뒤에 바울은 가장 먼저 금식하며 진심으로 회개하였다(행 9:9). 금식하며 진실로 회개할 때 영적 부흥은 일어난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느 9:2).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를 끊는다. 과거에 따랐던 세상의 모든 것들과 절교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고후 6:17).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교만한 행하며 존경받기만을 원하며 회개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리만 한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를 추구한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무조건 세상과 타협하며 포용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참 복음을 전한다. 약속의 언약이 없는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다(렘 2:2). 따라서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과 절교할 때 영적 부흥은 일어난다.

저서 그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지쳐 있었다. 육신이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앉아 있지 않고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안락한 예배와 안락한 신앙만을 원했던 모습을 회개하라! 그리고 사단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을 향해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은사를 전하라. 영적 전쟁 중인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일어서서 십자가를 전할 때 영적 부흥은 일어난다.

회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느 9:2). 육신의 피곤도 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자신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진심으로 자신의 고집, 욕심, 탐심, 자존심, 이기심, 명예, 외식, 영적 어둠을 회개하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영적 부흥은 일어난다.

말씀을 읽는다 “이 날에 낮 사분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오라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상독하고”(느 9:3). 우리는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읽으며 오라면 비명을 깨닫고 있지는가? 혹시 성경을 많이 읽지만 하고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광야에서 내사를 만난 빌립이 전한 분은 오직 예수였다(행 8:34,35). 특히 성경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약용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골라서 보고 듣고 읽지 말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읽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눅 4:17-21). 예수님께서 전하신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영적 부흥은 일어난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 “낮 사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데”(느 9:3).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경배는 진실로 새롭고 아름다운 경배였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의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경배였기 때문이다(느 8:8,9).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만유의 주재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되신 주로다”(찬 48장). 나의 명예, 의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참 경배를 드려야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요 4:23). 하나님 앞에 서서 영의 눈을 열고 자신의 진부를 드러지(요 4:24).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때 영적 부흥은 일어난다.

“내가 곧 길이고 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의 길은 열렸다. 진실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모여 금식하며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를 끊고 서서 회개하며 생명의 말씀을 청종하자.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오직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맺어야 한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열드려 경배하네”(찬 303장).

새벽을 통해 깊어진 사랑

저는 저의 믿음만을 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단일한 신앙이었습니다. 저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분주하게 직장 생활을 했기에 조금의 여유도 없이 주말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단지 이 정도면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생활도 다 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의 중심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나의 모든 것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들어오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칼이 되어 저의 깊은 죄성을 찢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안 단일했던 저의 신앙을 회개하였고, 단일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기도를 저지 않았습다. 그리고 마침내 저의 남편도 변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주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합니다.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금요 집회와 새벽 기도회에 나오면서 남편의 가슴은 온통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남편은 더욱 기쁘게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저와 남편을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신 주님의 뜻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오늘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염유선(집사, 1교구)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

이전의 나의 삶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직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멀리하여 새벽부터 직장내 나갔고 내가 아닌 내 안 된다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권리를 위하면 채 세상과 타협했던 생활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의 삶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점점 말씀을 사모하는 온유의 삶으로 변화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필요일마다 위임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과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으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제 새벽에 주님을 만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이 기대가 되던지요. 아내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가장 먼저 주님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내가 날마다 죽노라”가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감사와 찬양을 드린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가까워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 하루 나의 삶이 새벽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열리기를 간구하며 내 의지가 아닌,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희우(만수집사, 4교구)

내일을 책임질 십자가의 일꾼되게 하소서!



김연규 (정로, 제2교육위원장)

이 부족한 죄인의 죄로 얼룩진 과거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현의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일찍이 청년의 때에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여 세상의 많은 유혹과 육체의 욕망을 뿌리치고 자제하여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총현의 젊은이들은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 말씀 안에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갈 2:20).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새 일꾼

제2교육위원회는 고등부, 대학부, 청년 1·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함과 뜨거운 마음을 가진 새 일꾼들이 큰 감사와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일에 앞서 십자가의 복을 위해 바로 서고자 하는 영적 부흥을 소망하는 기도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매주일 5부 예배 후에 정예 기도대원들이, 대학부와 청년 1부는 수요일 2부 예배 후 정예 기도대원들이, 청년 2부는 수요일 1부 예배 후 기도특공대원들이 교회와 부서의 부흥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틀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과 발랄한 모습이 기성 세대와 다른 점이 있지만 젊은이들 속에 함께 하여 보니 자들의 순수한 신앙과 십자가 복을 위해 뿌리내린 굳건한 믿음의 열정이 오히려 존경받던 기성 세대가 본 받아야 할 모습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강단에서 위임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십자가 복음이 고·대·청년들의 마음 밑에서 아름답게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는 절실한 것을 알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들과 함께 하시는 보혈의 은혜로 저들은 차세대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19교구의 부흥을 소망하며

특히 이 세 때에는 19교구 교구 활성화로 젊은이들의 교회 정착과 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교구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19교구는 총현의 만 14세부터 35세까지의 미혼인 단독 세대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세대와 성도로 구성되어 1교구부터 18교구인 지역 교구에 출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별도로 설립된 청년들의 교구입니다. 19교구 소속 성도 전원이 주일학교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사관부, 에베다부의 교육 대상자들입니다. 지난 2005년 세산자 등록자 가운데 42% 정도가 19교구에 속한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자 교회에 등록한 자들 중에 19교구를 통하여 교회의 조직에 소속감을 주고, 새신자의 정착, 주일학교 등록, 선교 및 자원봉사에 동참, 주일 5부 예배, 금요 찬양예배, 새벽기도의 참여를 기하여 차세대 총현 교회의 귀중한 일꾼들로 양육되어질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하고 공급하는 일을 19교구 활성화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부장을 19교구의 지역장으로, 부감을 부지역장으로, 주일학교 임원들을 포함한 24명의 구역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매 주일 1시 30분부터 5부 예배 시작 전까지 제2교육관 1층 코이노니아실에서 19교구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19교구에 해당되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온 교인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젊은이들

2006년 단기선교자금이 나오자마자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합하여 1, 2월에만 무려 24개 단기선교팀이 구성되어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대견한 모습입니다. 젊은이로서 분주한 일상이 있었지만, 이들은 마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담대한 모습으로 선교에 자원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과 믿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드리고 있는 이들은 총현의 내일을 책임질 십자가의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2교육위원회에 속한 교회학교와 19교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회개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 2:15).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첫 선교팀

선교의 닦은 물려졌습니다. 이제 열방을 향한 2006년 첫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첫 선교팀인 중등 2부 팀원들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 ※ 두 번째 선교를 갑니다. 지난 선교 경험과 내 방식이 아닌 철저히 성경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갑니다. (최용현)
- ※ 이번 선교에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선교할 것이며,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성원)
- ※ 성경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하지 않고 사역하겠습니다. 성경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김지영)
- ※ 열심이 기도해서 파송되는 날까지 언어, 말씀을 준비해서 주님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 하시는 동역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중임이 되겠습니다. (김정아)
- ※ 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같이 선교까지 못한 친구들 뭉개지 하고 오겠습니다. (황지영)
- ※ 늘 기도하고 성경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모르는 많은 그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공예원)
- ※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시는 것을 본받아, 팀원들을 잘 섬기며 예비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경의 인도에 순종하겠습니다. (김명의 집사, 홍우)

- ※ 가는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인 기도하며 준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한은애)
- ※ 팀워크 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군병 되어 사탄, 마귀를 대히 물리쳐서 이 사역이 온전히 주님에게 영광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예)
- ※ 처음 가는 선교지인 선교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대담히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최연오, 의로)
- ※ 세상의 계획된 일을 내려 놓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곳에서 만날 영혼들과 함께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오겠습니다. (이진아 집사, 서기)
- ※ 주님을 알고 살아 가는 삶이 무한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살아 가는 선 고지 영혼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위철용 집사, 회개)
- ※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행2:28), 이 생명의 길을 모으며 살고 있는 이방인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윤병석 안수집사, 팀장)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2006년

두 가지 질문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니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엉망이었던 것 같다. 찬양대에 서 머물고 산만하게 움직이며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다.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런데 전 가족 연합 예배 때 위임목사님께서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 하신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게 해 주세요.' 아멘. 박종현(소년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2006년이 되고 싶다. 그런데 항상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이 아직 많이 있지만 항상 기도하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 같다. 분명히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올해에는 잘 모르는 친구들과도 가깝게 지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 또한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과 매일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겠다.



박동규(소년부)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찬 405장). 교회 등록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념이 너무나 확고했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라 여겼고, 어린이들에게 종교의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올 8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시련을 주신 것에 대해 화를 내고 따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며 통곡하며 매달리는 저가 안쓰러우셨는지 제 인생의 첫 기도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쭈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였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너의 가슴이 그렇게 아픈데 나는 오죽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물었습니다. 기도라는 게 일기를 쓰는 것처럼 자기 반성이라 생각했었던 저에게 과연 이게 내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의심했습니다. 믿음 없는 가운데 정신없이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라고. 주님께선 '너가 나를 너무나 부정하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너를 아노니 너를 통해서 나를 보여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저를 그렇게도 사랑하고 계셨고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리셨음을 알게 된 그 날부터 제 삶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랐던 저는 주님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만큼 궁금한 것도 많았고,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할 때 말씀은 저의 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선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끊임 없이 반복해서 주시므로써 최인인 저를 일깨워 주시고 그 답을 알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2006년도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박지연(청년1부)

전도 다이어리

2005. 12. 4(주일)

올해의 전도 지역이 발표되었다. 작년의 3배 크다. 우리 인원은 한경되어 있는데도 올해는 아기도 많고 초등학교 입학생들도 있는데 이를 어찌나 걱정이 앞섰다. 주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



2005. 12. 8(목)

전도할 지역을 미리 가 보았다. 가구수와 식당 건물들을 체크해 보았더니 예상대로였다. 각기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못 합니다."

2005. 12. 9(금)

몇몇 식구들과 함께 가구수와 건물들의 특색에 맞게 각 구역별로 담당자를 정했다. 작년에는 한 번 나갈 때마다 60장 정도의 전도지를 준비했는데 올해는 구역의 절반씩 나간다고 해도 100장은 준비해야겠다. 주님의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자!

2005. 12. 12(월)

전도부장과 함께 전도지와 주간 총원을 챙겨왔다. 우리는 내일 전도를 나가기로 했다. 내일의 날씨와 모든 여건을 주님께 맡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

2005. 12. 13(화)

너무 춥다 영화 95란다. 오전 9시 30분부터 모여서 전도지와 오늘의 중요한 사항들을 정했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회원들이 한복씩 못 온다고 전화가 올 땐 정말 힘이 빠졌다. 하지만 자기 몸이 아픈데도 뚝도 안 된 아기를 업고 나오는 가 하면, 6개월도 안된 아기가 장염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데리고 나온 회원도 있었다. 전도할 인원이 3명(2인 1조)밖에 나오지 않아 짐사냥 한 분께 뚝도 안된 아기들을 3명이나 맡기고 우리는 전도를 나가야 했다. 전도를 나갈 때와는 달리 돌아올 땐 힘들었던 것만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었다. 전도지도 많이 부족했다. 다음부터는 100장을 더 준비하기로 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기에 한 것뿐인데 그로 인해 오히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진정으로 감사한다.

마리아 전도회(1교구)

오직 기도!

작년 5월, 모조 교사로만 봉사하다가 처음으로 반을 맡게 되었다. 그 반 선생님께서 호조로 유학을 가셨기 때문이다. 얼떨결에 맡게 된 반이라 기도도 많이 못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쉬운 줄로만 알았다. 주일날 예배 시작 전에 아이들이 하나 둘씩 반으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동안 혼자 애드립하기에 익숙했던 나는, 아이들에게 "손 모으고 손 잡고 기도해야지."란 말조차도 하지 못 했다. 그래도 아이들은 이런 모자란 나에게 방긋방긋 웃으며 "선생님"이라 해주고, 잘 따라 주었다. 공과 공부 시간에 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거의 책을 읽어 주고 있었다.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바쁘다고 아무런 수업 준비도 없이 가르친 적도 있다.



이런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을 리 없다. 권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이 원래 장난기가 많긴 하지만 수업 시간애조차 떠들기 시작한 것이다. 장난기가 싫어하는 아이를 단해서 수업을 듣게 하긴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공과 시간에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해 달라고 말이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교사가 된다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교사를 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아이들에게는 부족하기만한 교사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다.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김신영(교사, 초동부)

교회 탐방 93 에스더 전도회(14교구)

전도는 우리의 기쁨이며 삶!

다매섹 사건 이후의 바울은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마창까지로 14교구 에스더 전도회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다.

에스더 전도회는?

50~59세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명남 교사)
매주 수요일에 모여 월례회 외에 교회주변을 전도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손선혜 교사, 화강)

전도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당연히 전도입니다. "전도는 전도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전도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시다. (손선혜 교사)
처음에는 어떤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회원들이 전도하는 기쁨으로 삽니다. 정말로 중섭니다. (김자금 교사)

전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2인 1조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문명남 교사)
많은 말을 나누고 들을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된 전도지와 함께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 교사)

전도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는?

갈기에서 중구길 배달원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일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전도지를 받고 무척 기뻐했고 꼭 다니자라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중구길로 짜장면을 먹러 갈 겁니다. (윤영희 교사)

저희들은 각 담당 구역 내에 있는 식당이나 가게를 일부러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김자금 교사)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관리인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곳을 지나며 기회를 노렸고 드디어 기회가 왔을 때 재빨리 고시원으로 들어가서 그 때 만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명남 교사)

계인방도 전도의 대상에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인방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주며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항상 들어갈 때마다 "또 한 달이 됐습니다"라고 외칩니다.

(강성자 교사)

담당어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각 주책을 돌면서 전도할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추남에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사람을 만나지 못하지만, 집의 대문이나 연광문이 사람이 건넌 것처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정성스럽게 전도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 교사)

특히 금요일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엄지를 세우며)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강성자 교사)

금요 집회에 있는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아픈 곳이 치료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건강을 주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독 알려겠습니다. (김영숙 교사)

에스더 전도회가 기도하는 2006년은?

전도는 전도회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김영은 교사)
교회가 정한 많은 물려지거나 생활 속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홍현희 교사)



직장인들은 수요일에 있는 전도에 참석을 못합니다. 올에는 이들에게도 전도지역을 할당해서 수요일 회에도 주일 또는 시간이 되는 대로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손선혜 교사)

마지막으로 14교구 에스더 전도회원들이 모든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든 전도회원들이 말뿐인 자기부인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를 부린다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기쁨이다"라는 음성 듣기를 기도합니다. (김영은 교사)

예수님은 진짜 부요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부요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전하기 원합니다. (김자금 교사)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오름' 처는 십자가에 꼭 버져 삽니다. 무엇을 해도 저를 지배하는 것은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이 은혜에 충현의 모든 성도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진숙 교사)

전도가 삶 속에 녹아 있음을 느꼈다. 무엇을 물어 봐도 이들은 대수의 기쁨과 고백이 넘쳐올랐다. 이들 모두는 고백하고 있다. 전도는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2006년에도 더욱 입장 발장을 내딛기 위하여 기도하자.

(원집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잘 수가 없는 때가 있었다. 매일 약을 먹어야 진정될 정도였다. 어느 날 혼자 앉아 생각해보니 이 세상에 나처럼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 또 있을까? 왜 나만 이럴까?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내 귀에 은은한 배경 음악에 똑똑히 들리는 부드러운 음성이 있었다. "날 사랑 하심 날 사랑함 성경에 써있네" 순식간에 들린 음성이었지만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나의 가슴에 분명히 새겨졌다. 이 찬양은 괴로운 날들을 보내는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다. 일론 일론! 찬송가를 찾아 보니 찬송가 411장의 후렴이었다. 당시에는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아니었다. 또한 단순한 멜로디 때문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찬양이 나를 사로잡았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악하나 예수 믿세 믿도다"

그 후로 매일 이 찬양을 반복해서 찬송하는데 그사 한 철 한 철 내 마음에 꼭꼭 담기면서 가슴을 적시니 그 은혜, 그 사랑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 콧물 흘러대 울고 또 울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점에서 해방된 것 같았다. "내가 연약함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천국만을 소망하게 되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감격의 연수이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저도 영원히 사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장신(재사, 호신나 전담)

세 · 가 · 록 · 술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7	신보미	19	대학부	주은혜(10)	76	박성훈	19	대학부	신호재(8)
48	김지은	19	청년1부		77	유규민	19	대학부	신호재(8)
49	최지훈	19	청년1부		78	배종원	10	청년2부	오희재(14)
50	배은정	19	대학부	윤상철(16)	79	김성환	19	청년1부	이성훈(19)
51	손재현	19	대학부	김정훈(13)	80	이준한	19	대학부	김재경(8)
52	신재진	13	고등부	이성호(8)	81	상정민	19	청년1부	방미애(5)
53	장기수	17	예배1부	주은혜(2)	82	오희정	19	청년1부	
54	안옥자	5	청년1부	이혜숙(5)	83	김다수	17	예배1부	허진희(9)
55	이난소	5	소양부		84	김희우	2	청년1부	정현민(19)
56	이혜진	4	청년1부	강경숙(4)	85	김은정	19	청년1부	김원실(1)
57	전한영	19	청년1부	박영지(2)	86	류정식	8	청년2부	
58	김미애	16	대학부	김윤철(11)	87	황성용	19	청년1부	홍현희(7)
59	이현주	9	청년2부	김종훈(4)	88	김진국	19	청년1부	구국희(7)
60	장기문	12	청년2부	강성재(14)	89	황혜하	19	청년1부	김영희(7)
61	백백아	19	청년1부	조선희(2)	90	아미미	5	청년2부	김혜림(5)
62	안희정	6	청년2부	엄현민(8)	91	이유리	19	대학부	
63	최정윤	1	청년1부	윤신현(1)	92	정영미	19	청년1부	정현민(19)
64	최경진	1	청년1부	윤신현(1)	93	박혜미	19	대학부	김유희(9)
65	서정규	19	중등2부	한성희(7)	94	김희정	19	대학부	김성희(19)
66	이은지	19	중등2부	이혜민(16)	95	박성진	19	청년1부	서병현(15)
67	박재근	19	중등2부	배정원(14)	96	박성진	4	청년2부	이승택(1)
68	최상진	19	중등3부	김현서(14)	97	김성영	4	청년2부	이승택(1)
69	김장숙	9	청년3부	김민석(1)	98	유서민	19	청년1부	주민정(8)
70	김교진	19	중등2부	최용현(1)	99	위사모인	19	대학부	송향애(19)
71	송창자	19	중등2부	김정아(5)	100	박정경	19	청년1부	
72	김기태	19	중등3부	장성훈(13)	101	오정현	11	청년3부	박진희(11)
73	문신아	14	소양부	주재원(14)	102	조은수	19	청년1부	김경덕(19)
74	황기자	3	청년1부		103	전주현	4	청년1부	홍진희(15)
75	임원섭	19	중등3부	주재원(4)	104	한두원	4	청년2부	

